**한 번은 작은 동네를 운전하여 통과하는데 / 케네스 해긴**



한 번은 작은 동네를 운전하여 통과하는데, 내 목사 친구 한 사람이 빨간 신호등인데

지나갔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사이렌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한 경찰관이 그의 차를 세우고 시속 30마일지역을 45마일로 과속한

것과 신호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벌금을 물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법원에 출두해서 자신의 경우를 설명하자

판사는 더 할 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는 작은 시골 교회 몇 개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설교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재판장님, 나는 10센트도 없습니다. 나는 시골 농장에서 일을 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정의를 구한다면 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와 같습니다. 그녀를 고소(참소)

하는 사람들이 그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8:7)'

예수님은 몸을 구부려서 땅에서 뭔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보니 모두 다 가버렸습니다."

"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0,11)"

그 목사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나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목사님은 자신의 성경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 페이지를 찾아서 그 판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판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감리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거기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나도 그 이야기를 가르쳐야겠습니다. 사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판사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과속을 하지 않고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공의로 지낼 수 있었을 것이며, 자비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자비와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열려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 케네스 해긴 著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믿음의 말씀사)" 중에서 -

Tags

혈약언약 은총은혜